

#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후식 식기형태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임지수

2014

## 차례

### 머릿글

#### 1

##### 연구배경

- (1) 후식의 개념
- (2) 식기의 심미적 기능

#### 2

##### 연구 목적

### 몸글

#### 1

##### 연구방법

- (1) 형태와 컬러연구

#### 2

##### 참고작가

- (1) 마틴 카우프만
- (2) 아뜰리에 반 리샤우트

#### 3

##### 연구작품

- (1) 드로잉
- (2) 연구작업

### 맺음글

## 머릿글

### 1

#### 연구배경

##### (1) 후식의 개념

본래는 프랑스어로 ‘식사를 끝마치다’ ‘식탁 위를 치우다’ 뜻이다. 이 과정을 후식 절차라고 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젤리, 푸딩,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일 등을 낸다. 프랑스요리에서 말하는 앙트르메는 원래 정식식사에서 요리 사이에 내는 음식이었으나 현재는 식사 후의 후식을 의미한다.

##### (2) 식기의 심미적 기능

오늘날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식생활도 단순히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 즐기고 감상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 후식을 즐기는 문화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되어 왔다. 식기는 식생활에 있어서 필수도구로써 담는다는 기본적인 역할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예술적인 역할도 한다. 식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식기는 음식이주는 미감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탁상위에 올려 났을때 공간에 미적 감각을 부여하는 역할을 지닌다. 기능에 충실하여 그 역할을 다하는 것과 함께 독립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기는 감정을 심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 2 연구 목적

최근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주식뿐 아니라 식사 후에 먹는 후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많은 식기들이 나와 있지만 식사를 마무리하는 후식을 먹을 때 여유롭고 우아한 맛음을 할 수 있도록 현대인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새로운 후식 식기에 대한 필요가 요구된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후식을 접하며 여유를 느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요소를 기존의 후식 식기에 결합하는 형태를 연구하고자한다.



도자로 만든 말 형상의 상차림  
Bodo Sperlein

## 몸글

### 1

#### 연구방법

##### (1) 형태와 빛깔연구

후식 식기에서 단순한 형태에 조형적 요소를 더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몇 명의 조각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연구합니다.

후식 식기에서 드러내고 싶은 단순한 형태와 조각적 장식적 요소의 결합시켜 보여주고자 합니다. 조형적인 특성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조각적인 요소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담고자 합니다.

금속의 형태에서 느껴지는 단순함과 조형적 요소에서 느껴지는 구체적인 형태는 제가 후식 식기 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형태연구에 특히 고민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색깔의 요소를 더해 조각의 요소에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속표면에 착색을 위해 색연필을 사용합니다. 색연필은 금속의 표면에 모래맞춤을 통해 흠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색연필을 덧발라 표면에 색을 입힙니다. 다른 착색방법과 달리 금속의 바탕색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특히 동화책에 삽화 그림 같은, 부드러운 색 표현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 2

### 참고작가

#### (1) 마틴 카우프만 Martin Kaufmann

마틴카우프만은 고전적인 단순한 성격을 강하게 보이는 작업을 합니다. 세심함, 엄격함 부드러움, 순리,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는 수년 걸쳐 연구해온 결과로 부드러움과 세심함의 에너지로 가득한 자신만의 특별한 형태를 구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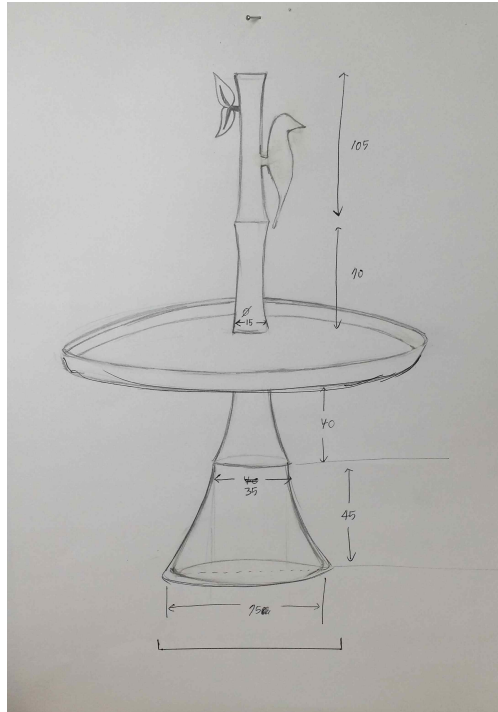


#### (2) 아틀리에 반 리샤우트 atelier van lieshout

아틀리에 판 리샤우트는 네덜란드의 디자이너로 건축 및 현대미술 분야에 다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지만 재미있는 형태를 실내에 결합시켜 그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연구작품  
(1) 드로잉



후식 접시 높이 300 넓이 180 (단위: 밀리미터)



정음으로 제작예정인 후식 환  
높이 80 넓이 70 (단위: 밀리미터)

(2) 연구작업



적동, 은도금(예정),정은(새,진행중)/ 높이 300mm 넓이 180 mm

대나무의 형태를 응용한 후식을 올려놓는 접시의 중심축에 색연필로 착색한 새를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동화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한다.



## 맺음글

커피를 즐겨 마시고 후식문화와 가족들과 모여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자주하는 나에게 후식은 즐거운 이야기가 오고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자리의 분위기와 식탁 위를 즐겁고 재미있게 빛내줄 수 있는 후식 식기의 연구는 나에게 충분한 호기심과 발전 가능성을 부여한다. 미각과 시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형태와 빛깔연구를 통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후식 식기의 주제로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사계절 식물을 응용한 도자 후식기 디자인 연구 2008  
황윤미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방용품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2007년  
최주연 | 학위논문(석사) / 국민대학교

마틴 카우프만 <http://www.ulla-martin-kaufmann.de/>

네이버 지식백과 <http://image.search.naver.com/>